[붙임 1]

2020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 참고자료

□ 대구 북구 근대산업유산[1)]

- 대상지 : 대구 북구(칠성동, 고성동, 침산동 일원)
- 대상지 역사 및 현황

대구 도심 경부선 관통지역의 북쪽일대 주거지역으로 대구 최초의 공업단지로 조성되었으며 해방 이후 섬유, 기계, 연탄 등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한국의 초기 산업화를 이끌었다.

1950년대 섬유산업을 견인했던 지역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 개발로 공장들이 사라지고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바뀐 곳으로, 침산동에 위치한 대구삼성창조캠퍼스는 옛 제일모직 공장터를 활용하여 창업인과 예술인들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다.

- 주요 키워드

유 형	주 요 검 색 어
지역 동명	침산동, 칠성동, 원대동, 고성동, 태평로 일대
대구근대산업 종목	섬유, 방직, 모직, 견직, 고무, 연탄, 기계제작, 경금속제작, 주정 등
주요 산업체 (고유명사)	조선방직, 군시제사공장, 조선어망주식회사, 종방, 대구방직, 대한방직, 내외방직, 삼호방직, 제일모직, 금성방직, 금성직물, 청구제지, 무림제지, 승리기계, 남선경공업, 석산나이롱, 선일제작, 삼립자동차, 아세아공업사, 삼국연탄, 대구연탄, 대성연탄, 부국주정, 풍국주정 등

1) 대구 북구 근대산업유산에 관련된 본 내용은 사단법인 시간과 공간 연구소「대구근대산업관광 아카이브작업 및 콘텐츠개발」의 최종보고서에서 발췌 및 인용하였습니다.